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정답 및 해설

1. ③ 2. ④ 3. ① 4. ② 5. ④ 6. ④ 7. ① 8. ② 9. ⑤ 10. ⑤
 11. ③ 12. ① 13. ① 14. ② 15. ④ 16. ⑤ 17. ② 18. ③ 19. ① 20. ②
 21. ① 22. ① 23. ⑤ 24. ① 25. ⑤ 26. ① 27. ② 28. ⑤ 29. ④ 30. ④
 31. ③ 32. ② 33. ⑤ 34. ② 35. ③ 36. ③ 37. ④ 38. ③ 39. ⑤ 40. ②
 41. ⑤ 42. ④ 43. ③ 44. ② 45. ⑤

[1~3] 화법

[1~3]

1.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3문단, 4문단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복원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5문단 첫 문장을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술은 문화유산 복원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진술된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5문단 2번째 문장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도 관심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요?’라고 진술되어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②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 성공한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학술 분야 간의 연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찾을 수 없다. ④ 문화유산과 관련된 산업의 발전 가능성, 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⑤ 문화유산 훼손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2.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청중 분석을 통해 청중이 ‘발표 내용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요구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발표에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과 관련된 직업’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기로 계획했으나 실제 발표에는 직업을 소개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학교 인근에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곳에서 디지털 기술로 복원한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으니 함께 해 보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지난 주 진로 시간 강연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만든 사례인 ‘석굴암을 가상 체험 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언급하고 있다.

3. 말하기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발표를 들은 학생은 ‘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라 디지털 복원의 가능 여부’가 다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

①은 유형 문화유산과 달리 무형 문화유산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원이 가능한지 묻고 있다. 따라서 ①은 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라 복원 여부가 달라지는지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문화유산의 훼손 정도에 따른 복원 가능 여부의 기준을 묻고 있으므로 학생이 떠올린 생각과 무관하다.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존 원리를 묻고 있으므로 학생이 떠올린 생각과 무관하다. ④ 제도적 차원에서 필요한 문화유산의 복원 노력을 묻고 있으므로 학생이 떠올린 생각과 무관하다. ⑤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소유권 문제는 학생이 떠올린 생각과 무관하다.

[4~7] 화법, 작문

[4~7]

4.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은 물건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창출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설명 대상에 대한 과학적 상식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상식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 바로 앞부분의 말을 재진술하고 있다. 또한 ‘물건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④ ‘발명가’의 세 번째 말에서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학생 2’가 이 정보를 이용하여 발명가가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인지 단계에 속하는 내용을 예측하며 말하고 있다. ⑤ ‘자가 발전 기능이 있는 손전등에 전자기 유도 법칙이 이용됐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의 발화를 보충하고 있다.

5. 말하기 내용 추론

정답해설 : (가)에서 발명가의 세 번째 말을 보면 ‘도움을 얻기 위해 기존의 다른 발명품들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4문단을 보면 ‘자동으로 공기가 채워지는 튜브를 참고해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진술되어 있다. 따라서 (나)에는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발명가가 발명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또한 (나)에서 자신이 발명 도중에 겪었던 어려움을 찾을 수 없다. ② 발명가의 마지막 말을 보면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에는 개선이 필요한 주변 사물의 문제점을 찾을 수 없다. ③ (가)의 발명가는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각 단계를 양념 담은 통이 아닌 필기구로 설명하고 있다. ⑤ (가)에서 발명가 첫 번째 말을 보면 발명이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에는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고만 언급하고 있지,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실제로 물건을 제작, 완성하는 과정은 서술하지 않고 있다.

6. 요약하기 실제

정답해설 : 선생님은 중심 내용을 요약할 것, 중심 내용의 의의를 덧붙일 것을 조언하고 있다. (나)의 중심 내용은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요약을 위해서는 이 모형의 세 단계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가)에서 학생 2가 '저도 발명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힘들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알려 주세요.'라고 요청하자 발명가가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라고 대답하는 지점에서 이 모형의 의의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나)의 1문단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나)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요약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조언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② 중심 내용이 지닌 의의를 덧붙이지 않고 있다. ③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의 핵심 내용을 잘못 요약하고 있다. 물건을 탐색하며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 보라는 것이 주변 사물들 중에서 발명 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⑤ 중심 내용이 지닌 의의를 덧붙이지 않고 있다.

7. 내용 조직의 적절성

정답해설 : (나)의 중심 화제는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다. (나)는 '자전거'를 예로 들어 각 단계에서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에서 '먼저', 3문단에서 '그 후', 4문단에서 '마지막으로'라는 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지가 글의 자연스러운 전개를 돕고 있다. ③ 표현이 어색한 문장으로는 '직접 자전거를 타 보이기도 하고, 자전거를 분해해 보이기도 하면서 탐색된다.'를 들 수 있다. '보이기'는 '보기'로, '탐색된다'는 '탐색한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3문단 마지막 문장은 글의 주제와 관련성이 적어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4문단의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서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 첫 문장이 '개선 방안을 생각한다.'로 끝난다. 따라서 '개선 방안을 생각할 때는'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8~10] 작문

8.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가)에 반영된 생각만을 찾아야 한다. (가)의 4문단을 보면 '학교 시설을 보수하거나 설치하는 일이 2주 이상 걸리는 경우 방학을 활용한다. 그런데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되면 학교 시설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2학기를 시작'할 수 있다

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 측에서는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4문단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여름방학 기간 단축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은 (가)에 반영되어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은 여름방학 단축의 이점인데, 이는 (가)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ㄹ은 예상되는 반론을 떠올린 것인데, (가)에서는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9.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학교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은 수업의 연속성 확보와 학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제시하여 (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 (나)의 어느 부분에서도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의 1문단에서 (가)로 인해 촉발된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글의 목적은 ‘그 글에서 제시한 근거들을 반박하고자 한다.’에서 찾을 수 있다. ② (나)의 2문단에서 여름방학의 의미가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오히려 학기 중보다 학습 부담이 커져서 여름방학 기간에 여유를 갖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진술되어 있다. ③ (나)의 3문단을 보면 ‘2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개인 체험 학습을 신청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진술되어 있다. ④ (나)의 4문단을 보면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지난 학기 중 특별실 보수 공사를 하였지만 불편 없이 진행되었다.’라고 진술되어 있다.

10.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A] 부분을 비판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을 묻고 있다. [A]의 핵심 내용은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어서 학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학년 말의 비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피하는’ 것이다. 여름방학 기간이 서로 다른 두 학교 학생들이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기억하는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는, 여름방학 기간과 학습 연속성은 서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어서 학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학교 시설 공사로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는 것은 [A]와 무관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나)의 4문단을 비판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으로는 적절할 수 있다. ②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체험 학습 일수 제한’은 (나)의 3문단을 비판하기 위한 자

료 활용 방안으로 [A]와 무관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③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할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주장은 [A]와 무관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④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지만 학년 말 학사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던 다른 학교 사례’는 학사 운영과 무관하다는 주장과는 연결되기 어렵다. 또한, [A]는 여름방학 기간 단축이 학사 운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A]의 주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진술이므로 오답이다.

[11~15] 문법

[11~12]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

지문 해설 : 이 글은 단어의 의미 관계 중 상하 관계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특성을 구체적인 예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특히 상하 관계에 있어 같은 계층에 있는 공하의어 사이에는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 하의어들은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는 점, 한 상의어가 같은 계층의 두 단어만을 공하의어로 포함할 경우 상보적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주제] 상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특성

11. 어휘의 의미 탐구

정답해설 : 상하 관계에서는 하의어들이 상의어의 의미를 이어받아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즉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이 많은 하의어가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는 것이다. 제시된 사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구’는 ‘악기’의 상의어이고, ‘악기’는 ‘북’의 상의어이다. 그러므로 ‘악기’는 ‘기구’를 의미적으로 함의하고 ‘북’은 ‘악기’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상의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하의어일수록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타악기’는 ‘실로폰’의 상의어로서 ‘실로폰’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② ‘타악기’가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북’은 ‘타악기’의 하의어에 해당하므로 [두드림]이라는 의미 자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④ 공하의어는 상의어인 어떤 단어에 대해 같은 계층에 있는 하의어를 일컫는 말이다. 제시된 사전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기구-악기-타악기-심벌즈’라는 상하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타악기’와 ‘심벌즈’는 모두 ‘기구’의 하의어에 해당하지만 ‘기구’의 공하의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⑤ 하의어는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을 더 가져 의미 자질 개수가 더 많다. ‘악기’의 사전 풀이에 비추어 볼 때 ‘현악기’와 ‘관악기’는 ‘악기’의 공하의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현악기’와 ‘관악기’가 ‘악기’의 상의어인 ‘기구’보다 의미 자질의 개수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12.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비양립 관계와 상보적 반의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단어 쌍을 찾는 문항이다. 비양립 관계와 상보적 반의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상의어가 같은 계층의 두 단어만을 공하의어로 포함하면서 그 두 단어가 양립하지 않으며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야 한다. <보기>의 문맥에서 '지구의 양극'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북극'과 '남극'은 '극'이라는 상의어에 대해 공하의어이다. 그리고 '북극'이면서 동시에 '남극'인 경우는 없어 비양립 관계가 성립하고, '극'이 '북극'과 '남극'만을 공하의어로 포함하면서 '북극'과 '남극'이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보적 반의 관계도 성립하고 있으므로 ㉠과 ㉡을 모두 만족시키는 단어 쌍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상의어를 '계절'로 본다면 '여름'과 '겨울'은 공하의어이고, '여름'이면서 동시에 '겨울'일 수는 없어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계절'에는 '봄', '가을'이라는 하의어도 있어 상보적 반의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상의어를 '조류'로 본다면 '펭귄'과 '갈매기'는 공하의어이고, '펭귄'이면서 동시에 '갈매기'일 수는 없어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조류'에는 '닭', '오리' 등과 같은 하의어도 있어 상보적 반의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 '여름'과 '계절'은 공하의어에 해당하지 않아 비양립 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상보적 반의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⑤ 상의어를 '동물'로 본다면 '개'와 '갈매기'는 공하의어이고 '개'이면서 동시에 '갈매기'일 수는 없어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동물'에는 '펭귄', '닭', '오리' 등과 같은 하의어도 있어 상보적 반의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3. 음운 변동 이해, 적용

정답해설 :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음운 개수의 변화 양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문항이다. 음운의 개수는 교체가 일어나면 변하지 않고,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나면 각각 한 개가 줄어든다. 반면 첨가가 일어나면 한 개가 늘어난다. '흙하고'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ㄹ'이 탈락하여 [흑하고]로 바뀐 후 다시 자음 축약에 의해 'ㄱ'과 'ㅎ'이 축약되어 [흐카고]가 된다. 탈락과 축약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어들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저녁연기'는 ㄴ첨가에 의해 'ㄴ'이 첨가되어 [저녁년기]로 바뀐 후 다시 비음화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저녕년기]가 된다. 첨가 및 교체가 한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는 한 개 늘어났다. ③ '부역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부억문]으로 바뀐 후 다시 비음화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부영문]이 된다. '뉘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뉘는]으로 바뀐 후 다시 비음화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뉘는]이 된다. '부역문', '뉘는'은 각각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는 모두 변하지 않았다. ④ '엷지'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ㄷ'이 탈락하여 [언지]로 바뀐 후 다시 경음화에 의해 'ㄷ'이 'ㅈ'으로 교

체되어 [언찌]가 된다. ‘뭉고’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ㄱ’이 탈락하여 [물고]로 바뀐 후 다시 경음화에 의해 ‘ㄱ’이 ‘ㄱ’으로 교체되어 [물꼬]가 된다. ‘엷지’와 ‘뭉고’는 각각 탈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음운의 개수는 모두 한 개씩 줄어들었다. ⑤ ‘늪네’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ㅂ’이 탈락하여 [널네]로 바뀐 후 유음화에 의해 ‘ㄴ’이 ‘ㄹ’로 교체되어 [널레]가 된다. ‘밝는’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ㄹ’이 탈락하여 [박는]으로 바뀐 후 비음화에 의해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방는]이 된다. ‘늪네’와 ‘밝는’은 각각 탈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음운의 개수는 모두 한 개씩 줄어들었다.

14. 문장의 짜임새 파악

정답해설 :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해 주어진 예문을 탐구하는 문항이다. ㉠에는 ‘피곤해하던’이라는 관형절과 ‘엄마가 모르게’라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또한 ㉡에는 ‘그가 시장에서 산’이라는 관형절과 ‘값이 비싸다’라는 서술절이 안겨 있다. ㉢에는 ㉠과 달리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인 서술절이 안겨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은 관형절을 의미한다. ㉣에는 ‘따뜻한’이라는 관형절이, ㉤에는 ‘내가 만난’이라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③ ㉣에는 명사절 ‘봄이 빨리 오기’ 속에 부사어 ‘빨리’가 포함되어 있고, ㉤에는 서술절 ‘마음이 정말 착하다’ 속에 부사어 ‘정말’이 포함되어 있다. ④ ㉣에 안겨 있는 문장인 ‘따뜻한’에는 ‘봄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에 안겨 있는 문장인 ‘그가 시장에서 산’에는 ‘배추를’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⑤ ㉠에서 부사절 ‘엄마가 모르게’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고, ㉡에서 관형절 ‘그가 시장에서 산’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다.

15. 중세 국어 문법의 이해

정답해설 : 중세 국어에 나타나는 서술격 조사의 실현 양상을 탐구하는 문항이다. <보기 1>의 설명에 따를 때, 중세 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었다. 즉 (1)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는 ‘이’, (2)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이거나 반모음 ‘ㅣ’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영 형태(∅)’, (3)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일 때는 ‘ㅣ’로 실현되었다. <보기 2>의 ㉠에서는 체언 ‘니’ 뒤에 서술격 조사가 붙는 경우이므로 (2)에 해당해 형태가 실현되지 않는 ‘니+-라’로 쓰이고, ㉡에서는 체언 ‘바’ 뒤에 서술격 조사가 붙는 경우이므로 (3)에 해당해 ‘ㅣ’로 실현되는 ‘바+ㅣ+-라’로 쓰인다. 그리고 ㉢에서는 체언 ‘다락’ 뒤에 서술격 조사가 붙는 경우이므로 (1)에 해당해 ‘이’로 실현되는 ‘다락+이+-라’로 쓰인다. ㉣에는 ‘니라’, ㉤에는 ‘바’의 ‘ㅂ’와 ‘ㅣ’가 결합한 형태인 ‘배라’, ㉥에는 체언의 끝소리가 서술격 조사 ‘이’의 첫소리로 연음된 형태인 ‘다라기라’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정답 ④**

[16~21] 독서

[16~21] 인문, 사회 융합 '율곡의 법제 개혁론'

지문해설 : 이 글은 율곡의 사상을 바탕으로 율곡이 제시한 법제 개혁론의 내용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유학의 근본적 목적은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는 것으로,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이'와 '기'를 바탕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이고, '기'는 끊임없이 변화·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율곡은 둘이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반인도 탁한 '기'를 잘 다스리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을 제시하였다.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그는 수양의 세 방법을 제시하였고, 천도의 실현하려는 수양론과 더불어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도 제시하였다. 율곡의 경세론을 대표하는 것이 법제 개혁론이다. 율곡은 왕도나 오륜은 고칠 수 없지만 잘못된 법제는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에서는 '록(錄)'에 수록된 규정들이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으로 판정되면 '법전'에 오르게 되는데, 한번 '대전'에 실린 규정은 국왕이라고 해도 고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이를 '조종성헌'이라 불렀다. 율곡은 자신이 고치려는 법이 '조종성헌'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임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주장하는 법제 개혁론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했다.

[주제] 율곡의 법제 개혁론의 사상적 배경과 의의

16.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6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경국대전》에 기록된 내용은 꾸준한 정련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유학, 곧 성학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에서는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된 경지에 오르는 사람인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이이는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하여 『성학집요』를 지었다고 했다. ③ 5문단에서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여기면 국왕이 조정의 회의를 통해 처리 지침을 만들고, 이 지침이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고 한다고 하였다. ④ '5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이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에 실리고 그 가운데에서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으로 판정된 것이 '대전'에 실린다고 하였다.

17. 세부 내용의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자 원리는 '기'가 아니라 '이'라고 하였다. '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천재지변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는 '기'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존재한다. ③ 율곡은 왕도나 오류는 '이'이므로 고칠 수 없지만, 왕도와 오류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제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율곡은 일반인도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율곡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갖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18. 생략된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율곡이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3문단에서는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이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수기는 '이'가 아니라 '기'를 정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② '이기지묘'란 '이'와 '기'는 구별되지만 분리됨 없이 존재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이통기국'은 일반인도 수양을 하면 '일반인'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과 상통하며, '수기'와 '치인'을 통해 기질적 병폐를 극복해야 할 이는 '성인'이 아니라 '일반인'이다. ⑤ 경전 읽기와 같은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수양 방법은 '역행'이 아니라 '궁리'이다.

19. 인과 관계, 상관 관계 추론

정답해설 : 율곡은 '이'가 물질적 요소인 '기'와 분리되지 않고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플라톤은 '이데아'가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율곡은 '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플라톤은 '이데아'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율곡이 말한 '성인'은 수양을 통해 될 수 있으므로, '성인'은 수양을 통해 통치할 수 있는 존재이다. 반면에 플라톤이 이상적인 통치자로 생각한 '철학자 왕'은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구현하려는 사람이다. ④ 율곡은 '이'가 형체는 없지만 '기'와 함께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플라톤은 '이데아'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⑤ 율곡은 유학을 통해 이 땅에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하였다. 반면에 플라톤은 현실에서는 이데아, 즉 이상 사회가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0.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에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에 있다.”고 했는데, 이는 '이'와 '기'의 특성을 정확히 제시한 것이다. 다만 선조는 근래에 일어나는 재앙을 막을 방안을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은 법제 개혁을 그 방안으로 제

시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것으로, ‘치인’을 위한 경제론을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율곡은 부당한 법령임에도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부당한 법령은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권세가들을 비판하였다. ④ 율곡은 불변적 가치를 지닌 삼강은 ‘이’의 영역이지만, 이를 실현할 법령은 ‘이’의 영역이 아니므로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이 ‘이’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경국대전》은 성종 때 확정된 것으로, 율곡은 성종이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은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개혁해야 한다고 보았다.

21.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숙종은 사람을 죽인 ‘갹’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명률》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고, 《경국대전》은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고 했다. 결국 숙종의 주장은 ‘갹’의 행위를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한 사례로 보지 않은 것이므로 조종성헌인 《경국대전》에 따른 법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숙종은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는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갹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 숙종이 《대명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갹의 처형을 주장한 것은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는 《경국대전》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④ <보기>에 따르면 숙종은 《경국대전》은 성스러운 규범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숙종은 《경국대전》에 적혀 있는 (나) 역시 ‘양법미의’가 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다만 숙종은 ‘대전’의 내용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멋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⑤ 숙종은 을을 죽게 한 갹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갹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22~25] 독서

[22~25] 사회, ‘통화 정책’

지문해설 : 이 글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등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통화 정책을 실시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라는 요건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있다. 먼저 ‘정책 외부 시차’의 발생이나 경기 과열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통화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와 관련해서는 ‘준칙주의’와 ‘재량주의’의 두 입장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각 주장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통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요건

22.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시작 부분에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통화 정책의 목적을 간단하게 드러냈을 뿐 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건에 대해 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의 ‘예를 들어’라는 표현 이후로 나오는 내용은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③ 1문단에서 중앙은행이 공개 시장에서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이 상승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공개 시장 운영’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인 채권의 매수와 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통화 정책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는 ‘준칙주의’와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재량주의’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내용 중 경제학자 병은 경기를 예측하고 있었으므로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이때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과 1문단에 언급된 ‘기준 금리가 하락하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기준 금리가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을 통합하여 판단하면 기준 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 매 분기 2%를 유지’하려면 1, 2분기에서 미리 기준 금리를 인하해야 ‘정책 외부 시차’가 발생하면서 2, 3분기에 3%로 제시된 물가 상승률을 낮출 수 있다. 이때 2, 3분기의 물가 상승률을 1%p 떨어뜨려서 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준 금리가 1.5%p 올라야 가능하다. 즉 ⑤처럼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면 ‘정책 외부 시차’가 발생하여 2분기의 물가 상승률이 2%로 조정될 것이다. 그리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에 따라 3분기 물가 상승률도 2%를 유지하게 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1분기에서 기준 금리를 2.5%로 인하하게 되면 2분기의 물가 상승률은 4%가 될 것이고, 2분기 기준 금리를 2.5%로 유지하게 되면 3분기 물가 상승률 역시 4%로 조정될 것이다. ② 1분기에서 기준 금리를 2.5%로 인하하면 2분기의 물가 상승률은 4%가 된다. 그리고 2분기에 기준 금리를 4%로 인상하면 3분기의 물가 상승률은 다시 3%가 될 것이다. ③ 1분기 기준 금리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2분기 물가 상승률도 3%를 유지하겠지만, 2분기 기준 금리를 5.5%로 인상하면 3분기 물가 상승률은 2%로 조정될 것이다.

④ 1분기 기준 금리를 5.5%로 인상하면 2분기 물가상승률은 2%로 조정되겠지만, 2분기 기준 금리를 4%로 인하하게 되면 3분기 물가 상승률은 3%로 조정될 것이다.

24.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준칙주의’와 ‘재량주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와 관련하여 준칙을 수용하는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준칙주의’에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어김으로써 중앙은행에 대한 민간의 신뢰가 훼손되면 더 큰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은행이 준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즉 ‘준칙주의’의 입장에서는 경제 변동에 신축적인 대응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준칙은 잘 지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재량주의’에서는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③ ‘준칙주의’는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재량주의’는 이와 달리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④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재량주의’에서도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⑤ ‘재량주의’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5.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부양’은 두 개의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봄.’이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가라앉은 것이 떠오름. 또는 가라앉은 것을 떠오르게 함’이라는 의미이다. 본문의 ㉞는 침체된 경기를 다시 활발하게 살린다는 의미이므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다.’에서의 ‘부양’은 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파급은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차차 다른 데로 미침.’의 의미이다. ② ‘발현’은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나타나게 함. 또는 그런 결과.’를 의미한다. ③ ‘수반’은 ‘어떤 일과 더불어 생김.’의 의미이다. ④ ‘유의’는 ‘마음에 새겨 두어 조심하며 관심을 가짐.’의 의미이다.

[26~29] 현대시

[26~29] (가) 자연적 시간과 문학적 시간, (나) 조지훈, 고흥 의상, (다)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작품해설 : (가)는 문학적 시간이 문학 작품 속에서 어떻게 자연적 시간을 변형하고, 재구성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는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

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변형되고 재구성되는데, 이에 따라 과거 형과 현재형의 표현이 선택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의 모호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주제] 자연적 시간의 변형과 재구성을 통해 나타나는 문학적 시간

작품해설 : (나)는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의 기품 있는 자태를 고가(古家)와 봄밤을 배경으로 그려냄으로써 고전적 우아미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감각적 이미지를 통한 묘사가 돋보이는 이 작품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고전적 우아미는 ‘부연’, ‘풍경’, ‘호장저고리’, ‘운혜’, ‘당혜’, ‘거문곶줄’과 같은 전통적인 소재와 그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아름다운지고’, ‘밝도소이다’, ‘흔들어지이다’와 같은 예스러운 말투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주제] 고풍 의상을 입은 여인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고전적 아름다움

작품해설 : (다)는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는 아버지가 된 화자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과거와 현재를 엮어 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드러나는데, 그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은 하얗게 결빙된 한강의 이미지이다. 화자는 이를 통해 유년 시절, 추위로부터 자식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을 떠올리는 동시에 한 줌 뺏가루가 된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추억하며 그리움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주제]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은 ‘봄밤’이라는 자연적 시간을 ‘두견이 소리’에 빗대어 그 흐름을 작가의 의식에 따라 문학적으로 재구성하여 형상화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은 대상을 곱고 아름다운 것으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가)에서 설명한, 화자의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거나,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건너’, ‘열고’의 표현을 보면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표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은 경우’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이 ‘이 밤’과 ‘옛날’을 통합적으로 인식한 것은 맞지만 이는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지는 경우이지 시간의 정확성을 드러낸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흔들어지이다’에서 현재형이 나타나므로, ㉤이 과거형을 사용한 경우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다)의 1연을 보면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은 화자의 현재 위치가 아니라 ‘예닐곱 살 적 겨울’이라는 과거에 화자가 위치했던 공간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의 1연, 3연의 첫 행에서 호명되고 있는 대상이 ‘어머님’인 것으로 보아 (다)는 화자가 ‘어머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연에서 추운 겨울날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던 기억을 언급한 것이나 2연에서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를 언급하는 구절을 통해 화자가 어머니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내용이 유년 시절 아버지와 겪었던 일임을 알 수 있다. ③ ‘옛날처럼 나는’을 말하고 있는 시점은 현재이고, 화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경험을 추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3연에서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가는 것은 현재이고, 그 풍경을 보며 화자는 과거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이 장면에서 화자의 과거와 현재가 시적 현재로 통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과거에 이미 돌아가신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현재의 시점에서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8.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의 12행에 말줄임표가 나타나지만 이는 ‘아미를 숙이고’ 있는 여인의 자태와 ‘호접’의 이미지와의 조화를 통해 정서적 여운을 함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전적 아름다움이 형상화된 것이지 시적 화자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곶아라’, ‘파르란’과 같은 시어의 변형을 통해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② ‘호장저고리’, ‘운혜 당혜’, ‘거문곶줄’과 같은 전통적 소재와 ‘아름다운지고’, ‘밭도소이다’, ‘흔들어지이다’와 같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여인의 움직임을 ‘한 마리 호접’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④ ‘파르란 구슬빛’, ‘자줏빛’, ‘하얀’과 같은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29. 감상의 적절성

정답해설 :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은 화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팡팡 얼어붙은 잔등’은 추위로부터 ‘부드럽고 여린 물살’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는 것으로 내면과 행동의 반대가 아닌 내면과 행동이 일치되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는 것은 자식을 지켜주는 아버지로서 화자의 모습이고,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것은 유년 시절 화자

를 보호해 주었던 화자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두 모습의 호응을 통해 아버지에서 화자로 그 마음이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② ‘늘 그런 추억’이란 자식들의 추위를 막아주느라 자신을 희생해야 했던 아버지께 대한 것이고, 이로 인해 마음이 아프다는 것과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는 아버지를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께 대한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하는 ‘한 줌 뺏가루’와 이승의 물로 화신하여 ‘하얗게 얼음으로 옆드려 있’는 강의 이미지는 모두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다는 것은 ‘아버지 가래가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던 기억과 연결된 정서로 자신을 지켜주었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다.

[30~34] 독서

[30~34] 기술,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

지문해설 : 이 글은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을 설명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DNS 스푸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DNS 스푸핑은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DNS 스푸핑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때 IP 주소 대신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IP 주소는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기억하기 어려워서, 이를 대신 하여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다. 도메인 네임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과정은, 웹 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하는 컴퓨터인 클라이언트가 네임서버에 IP 주소를 묻게 되는데 이때 UD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UDP는 상대방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제일 먼저 도착한 응답을 신뢰하게 되는 허점이 있는데, DNS 스푸핑은 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주제] 인터넷 사이트 접속 시 이용하는 UDP 프로토콜의 허점을 이용하여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

30.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의하면 DHCP는 유동 IP 주소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4문단을 보면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해야 하는 경우는 고정 IP 주소를 사용할 때이다. 따라서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에는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해야 한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의하면 프로토콜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이다. 이 글에는 인터넷 프로토콜(IP, 2문단), DHCP 프로토콜(3문단), UDP 프로토콜(5문단)이라는 세 종류의 프로토콜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 문단에서 이들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② 2문단을 보면 IP 주소는 IP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문단에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㉓ 2문단에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 주고’라고 제시되어 있다. ㉕ 5문단에 ‘UDP는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라고 제시되어 있다.

31.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㉑는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이다. ㉒는 클라이언트가 ㉑에서 네임서버에 보낸 질의 패킷에서 요청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네임서버의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때 네임서버는 자신의 목록에 해당 IP 주소가 없으면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므로, 네임서버는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늘 찾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㉓**

[오답피하기] ㉑ 5문단을 보면, 네임 서버는 질의 내용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자신의 목록에서 찾다가, 자신의 목록에 없으면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알려 주는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는 단계로 돌아간다. 따라서 ㉑에서 ㉑가 두 번 동작했다면, 두 질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패킷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네임서버이므로 수신 측은 다를 수밖에 없다. ㉒ ㉑에서 ㉑가 두 번 동작했다면, 질의 패킷을 받은 첫 번째 네임서버의 목록에 질의를 받은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받아 ㉑로 보냈기 때문에 다시 ㉑가 동작한 것이다. 즉 첫 번째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내용에는 다른(두 번째)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담겨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내용에는 요청받은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응답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진술은 적절하지만, 응답 패킷을 보낸 송신 측은 첫 번째 네임서버와 두 번째 네임서버로 서로 다르므로 송신측이 동일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㉒ ㉑는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㉑는 응답 패킷이 버려지는 상황이다. 6문단에 의하면 ㉑의 상황에서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클라이언트에 먼저 도착한다. 그런데 5문단에 의하면 UDP는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신뢰하고 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확인하지 않고 버린다고 되어 있으므로, ㉑의 상황에서 버려진 응답 패킷은 공격자가 보낸 것이 아니라 네임서버가 보낸 것이다. 따라서 ㉑에는 질의 패킷에서 요청한 옳은 IP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㉕ ㉑ 상황에서 ㉑는 공격자가 보낸 IP 주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㉑의 IP 주소는 ㉑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아니다. ㉑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는 ㉑에서 버려진 응답 패킷에 포함되어 있다.

32.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보면 사설 IP 주소는 내부 네트워크에서 서로를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식별'은 분별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사설 IP 주소가 서로를 식별하는 역할을 하려면 사설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한다. 같은 것은 구별되지 않아서 식별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DNS에 대한 설명은 4문단에 제시되어 있는데, DNS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쓰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한다. 4문단에 의하면 이때의 IP 주소는 '공인 IP 주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한다고 하였고, DNS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DNS가 필요 없는데, 3문단에서 사설 IP 주소는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된다고 했으므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DNS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DNS는 도메인 네임을 사설 IP 주소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 IP 주소로 변환하는 것이다. ③ 3문단에 의하면 유동 IP 주소는 DHCP가 각 컴퓨터에 부여하는데,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 주고,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소를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에 할당한다. 부여했던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에 할당한다는 것은,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할당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2문단에 각 컴퓨터들은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하며, IP 주소는 '중복 지정'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④ 각 컴퓨터들은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하며 IP 주소가 중복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 고정 IP 주소 방식은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선지의 내용대로 동일한 IP 주소를 부여하면 중복 지정을 하는 것이 되므로 글의 내용에 어긋난다. ⑤ 인터넷 통신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서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컴퓨터들에도 동일한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

33.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지문에 따르면 DNS 스푸핑은 DNS를 이용하여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네임서버가 운영하는 DNS를 이용하지 않으면 DNS 스푸핑을 피할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hosts' 파일에는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적혀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hosts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네임서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으면 DNS 스푸핑을 피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hosts 파일을 찾아 삭제하면 <보기>에 제시된, 클라이언트가 hosts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즉 클라이언트는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지 못한 경우이므로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게 된다. 이렇게 네임서버를 사용하게 될 경우 DNS 스푸핑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② 클라이언트는 웹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일컫는

용어이다. <보기>에 따르면,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해서 hosts 파일에 적어 놓아야 하는 것은 접속하고자 하는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이지 클라이언트의 IP 주소가 아니다. ③ <보기>에 따르면 hosts 파일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주소창에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면 네임서버가 운영하는 DNS를 이용해 해당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게 된다. 이렇게 네임서버를 사용하게 될 경우 DNS 스푸핑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해서 hosts 파일에 적어 놓아야 하는 것은 접속하고자 하는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이지 네임서버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가 아니다.

34.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포함된 문장은 구체적인 사물이 아닌 IP 주소를 숫자로 표를 하여 외부로 드러냄으로써 다른 것과 분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서술어인 ㉠은 외부로 드러낸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고, 이는 ‘표를 하여 외부에 드러내 보이다’의 뜻을 가진 ‘표시(標示)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포함된 문장은 컴퓨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고유 IP 주소는 IP에 따라 만들어지는 (㉡) 것이다. 이때 ㉡은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므로 ‘사물이 생겨나다’의 뜻을 지닌 ‘생성되는’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제조(製造)되다’는 ‘공장에서 큰 규모로 물건이 만들어지다.’ 혹은 ‘원료에 인공이 가하여져 정교한 제품이 만들어지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이 포함된 문장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 IP 주소 대신 이용하는 도메인 네임을 설명한 것으로, 도메인 네임이 어떤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지는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은 문맥상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지다’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구성(構成)되다’이다. ‘발생되다’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게 되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이 포함된 문장은 클라이언트가 네임서버를 통해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아내고, 이를 통해 웹사이트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때 ㉣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인정(認定)하다’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는 뜻이므로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⑤ ㉤이 포함된 문장은 네임서버와 클라이언트가 UD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 패킷을 주고받는다라는 내용이다. 이때 ㉤은 네임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패킷을 주고받을 때 UDP 프로토콜의 ‘방식에 따라’ 혹은 ‘그 방식을 이용하여’라는 뜻이다. 그런데 ‘비교(比較)하다’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다.’라는 뜻이므로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35~38] 고전 소설 - 작가 미상, '적성의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안평국국의 두 왕자 성의와 향의의 선악 대결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동생 성의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결국 승리한다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담은 소설이다. 내용은 크게, 병든 어머니를 낫게 하려고 둘째 왕자 성의가 서역으로 가서 일영주를 구해 오는 과정, 형인 향의에게 일영주를 빼앗기고 죽을 고비를 넘긴 성의가 우여곡절 끝에 천자의 딸 채란 공주와 혼인하는 과정, 안평국으로 돌아온 성의가 향의의 방해를 이겨내고 왕이 되어 영화를 누리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교 설화의 바탕 위에 도교적 색채가 가미되는 한편, 효(孝)라는 유교적 덕목을 강조했다는 점이 특징인 작품으로, '육미당기'나 '김태자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주제] 효의 실천과 권선징악

35.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화상이 성의에게 한 말 중에, 보탑존자가 '명일 유시에 안평국 왕자 내게 올 것이니 오는 즉시 아뢰라.'라고 어제(작일에) 자신에게 분부하셨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안평국 왕자는 성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성의가 찾아올 것임을 보탑존자가 화상에게 미리 알려두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화상은 '인간 육신으로 이곳을 들어왔으니 정성을 가히 알지라.'라고 하면서 '그대 정성을 신령이 감동'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인간 육신으로 서방 세계에 온 성의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성이 가혹함을 알아보고 치하한 것이다. 또한 화상이 성의의 능력을 시험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② 성의는 칠 일 재계 후에 다시 오라는 화상의 말을 듣고, 차라리 이곳에서 죽겠다며 존자를 당장 만나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성의는 어머니의 병환을 낫게 하고자 일영주를 구하려는 것이지 존자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④ 호 승상은 남일국에 사신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성의의 피리 소리를 들었으며, 그것이 선동이 속객을 희롱하는 것 같다고 느껴 시동에게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라고 한다. 따라서 남일국에 사신으로 가는 길에 선동에게 희롱당하고 일행과 함께 자리를 떴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⑤ 시동은 호 승상의 명을 받아 피리 소리 나는 곳을 찾아 나선다. 그가 혼자 나서기를 두려워하거나, 호 승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36.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됨에'라고 한 말은, 전생에 천상계의 존재였던 성의가 묘일성신과 갈등을 겪었고, 이번 생에 그 묘일성신과 형제로 태어났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세의 묘일성신은 현세의 형 향의이다. [B]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의는 형인 향의가 무죄한 인명을 해치고 자

신도 앞을 못 보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A]에서 제시된 묘일성신과의 전세 악연이 현세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B]에서 성의는 어머니의 병세가 어떠한지, 일영주를 썼는지 등을 몰라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일 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② [B]에서 성의는 인자하신 어머니가 이러다가는 ‘황천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통곡하는 것이지 자신이 황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④ [B]의 성의는 한 조각 판자에 의지하여 떠가다가 달은 적막한 바위 위에서 탄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모의 곁에 있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B]에서 성의는 ‘불량하여 무죄한 인명을 창파 중에 월흔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지경이 되게’ 만든 형 항의 때문에 슬피 통곡하고 있으므로, 탄식을 통해 형에 대한 통한을 풀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A]에서 말한 ‘월한을 풀 날’이란 권선징악적인 결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7.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㉞의 처량한 피리 소리는 눈이 먼 채로 적막한 곳에 홀로 떨어져서 헤매고 있는 성의의 슬픈 심사가 투영된 소리이다. 따라서 이 피리 소리는 성의가 지닌 피리 부는 재능의 탁월함을 천상계에 알리는 신호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㉞은 두 눈을 상하고서 적막한 바위 위에서 한탄하던 성의가 문득 듣게 된 소리로, 성의는 이 소리가 대밭에서 나는 것임을 알고 그곳이 축나라 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② ㉞은 대 소리를 쫓아 내려가려던 성의가 문득 듣게 된 오작(까마귀와 까치)의 우짖는 소리로, 성의의 손이 짙이는 곳에 실과가 있음을 알려준 신호로 볼 수 있다. ③ 대 소리를 따라 대밭에 온 성의는 ㉞을 듣고 그 대를 더듬어 찾아, 칼로 베어서 피리를 만든다. ⑤ 피리를 불며 심회를 달래던 성의는 ㉞을 들은 호승상 일행과 만나게 된다.

3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존자는 성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성의가 올 것임을 화상에게 미리 알리고, 오는 즉시 보고하라고 하였다. 마음이 부정하면 대사를 보지 못할 것이니 칠 일 동안 재계하고 나서 오라는 말을 한 것은 존자가 아니라 화상이다. 또 성의는 권선징악적 성격을 지닌 이 작품에서 선악 대결 당사자 중 선인에 해당하므로 존자가 만나지 않으려 하는 부정한 자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존자는 성의에게 ‘너는 본디 하계(下界)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였다. 이는 곧 하계와 대립되는 천상계가 존재한다는 설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금강경과 같은 불경이나 염주 등은 물론이고,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부처의 제자를 높여 이르는 말인 존자(尊者)도 불교적 소재이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대로 이 소설이 불교 설화를 근원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④ [B] 부분에 드러나 있는 성의의 탄식은 가족의 일원인 형 항의와의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신세가 그토록

처량하게 되었음을 한탄하는 것이다. ⑤ 성의가 어머니의 병을 구완하려고 일영주를 얻으러 서역까지 간 것은 <보기>에 제시된 대로 유교적 덕목인 효행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9~41] 현대 소설

[39~41] 현대 소설 - 이호철, '큰 산'

지문해설 : 이 소설은 액운을 환기하는 고무신짜를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리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대학 출신의 샐러리맨 부부가 비교적 많이 사는 마을에서, 즉 어느 정도 교양과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이들 사이에서 비양심적이고 비합리적인 행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고향 마을의 '큰 산'을 떠올린다. 마음의 중심을 잃은 현대인들에게는 '큰 산'처럼 공동체의 질서와 균형을 잡아 주는 근원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주제] 현대인의 이기적인 태도 비판과 넉넉한 삶의 회복에 대한 염원

39.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첫 문단을 보면, 열흘쯤 전 아침에 대문 앞 쓰레기통에 버린 고무신짜를 아내가 밤에 끄집어내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던진 사건의 경과가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진술에는 '~던 모양이었다.', '~을 것이다.'와 같은 '나'의 추측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남의 집에 던져 버렸던 고무신짜가 다시 '나'의 집 뜰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열흘쯤 뒤의 아침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글에는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는 부분이 없다. 주요 사건은 '나'의 집 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중간에 서사의 진행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은 동시 사건의 병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활짝 개어 오른 하늘에 관한 '나'의 상념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이 글의 서술자는 작중 인물인 '나'로 설정되어 있다. ③ 아내의 말을 듣고 '나'가 생각에 잠기는 부분이 드러나 있긴 하지만, 이것은 연상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시대 상황의 이념적 성격과도 거리가 있다. ④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가 작중 인물인 '나'이기 때문에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글에는 인물의 위선적 면모가 표면에 드러난 부분도 없다.

40. 작품 배경의 의미, 역할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아내는 밤새 눈이 온 것을 보고 아이처럼 기뻐하고, '나'는 그런 아내의 '낭랑한 웃음'이 '활짝 개어 오른 눈 내린 겨울 아침'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맑고 밝은 분위기를 띠던 작중 상황은 열흘 전쯤 내다 버렸

던 불길한 고무신짝이 담 밑에서 다시 발견되면서 ‘음산한 분위기로 둔갑’하게 된다. 고무신짝을 발견한 아내의 목소리는 험뻑거리듯 떨리고 있으며, ‘나’는 머릿속의 아득한 끝머리에 깊고 빈 들판이 확 열리는 듯한 공포에 휘감기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가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 주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나’는 눈이 내린 풍경을 보고 “밤새 왔던 모양이지요.”라며 기뻐하는 아내에게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하지.”라는 무뚝뚝한 대답을 건네고, 맞장구를 쳐주지 않는 ‘나’에 대해 아내는 야박스럽다고 가벼운 타박을 한다. ③ 이 글에서 ‘열흘 쯤 전의’ 일과 관련하여 인물이 한 말은 “고무신짝이에요, 또 그, 그 고무신짝.”이라는 아내의 말뿐이다. 또한 고무신짝에 대해 ‘나’와 ‘아내’는 공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와 아내가 열흘 쯤 전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상실감에 젖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아내는 ‘나’에 대해 ‘미심한 느낌’을 가졌던 것이 아니다. 아내는 액운을 환기하는 듯한 고무신짝을 멀리 내다 버리지 않고 대문 앞 쓰레기통에 버려 둔 것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⑤ ‘나’는 눈 내린 겨울 아침에 기뻐하는 아내를 보며 문득 무언가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고향의 ‘큰 산’을 떠올리게 되지만, 그 생각을 얼른 지우려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다. 따라서 ‘나’가 ‘고향의 그 큰 산’에서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을 날날이 되살리려 애쓴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자신이 합리적인 사람이라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나’에게 아내는 “흥, 이치 좋아하시네.”라고 악의 없이 말한다. 장난스러운 표정이 된 아내는 하늘이 깨끗이 개어 오르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느냐고 ‘나’에게 묻는다. 이런 대화 내용은 합리적 자세나 남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관 등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열흘 쯤 전, 아내는 ‘고무신의 논리’ 속에 흠뻑 빠져서, 어두워질 무렵 쓰레기통에서 고무신짝을 꺼낸다. 골목길을 기웃거리다가 어떤 집 담장 너머로 고무신짝을 던져 버리고 돌아온 아내는 ‘액땀’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고무신짝이 어떤 액운을 상징한다고 믿고 이를 피하려는 행동이었으므로, <보기>에서 제시한 대로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아내가 액운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고무신짝을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리는 것은 남이야 어찌 됐든 내 집에만 액운이 오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의한 것이므로,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한 것이다. ③ 아내가 ‘완전히 떨고 있’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고무신짝을 보고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태에 대처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주술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나’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를 싫어하는 것은 자신이 합리적인 사람이어서라고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나’는 뜰에 떨어져 있는 고무신짝을 보며 공포를 느끼기도 하는데, 이는 아내와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인 사고의 영향도 받는 것이므로 가

치관의 혼재 상황과 관련이 있다.

[42~45] 고전 문학

[42-45] 고전 시가, 고전 수필

(가) 주세붕, '오륜가'

지문해설 : (가)는 주세붕이 황해도 관찰사로 재직할 때 오륜이라는 유교적 가치관을 백성들에게 계도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이 작품에는 가부장적인 가정 질서와 국가 질서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서사인 <제1수>에서 오륜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밝힌 후 나머지 각 수에서 유교적 덕목에 해당하는 가치들을 하나씩 노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관념적인 주제를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인간의 일상적 삶을 통해 표현한 점, 적절한 비유를 사용한 점, 순우리말을 자연스럽게 구사한 점 등이 돋보인다.

[주제] 인간이 지켜야 할 오륜의 도리 강조

(나) 이곡, '차마설'

지문해설 : (나)는 말을 빌려 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소유에 대한 보편적인 깨달음을 제시하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는 세상의 부귀와 권세도 본래부터 소유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빌린 것임을 제시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를 망각하고 마치 자기 소유인 양 생각하고 반성할 줄 모른다고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지적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외물에 따른 인간의 심리 변화와 그릇된 소유 관념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소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

4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이 말삼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형제가 불화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같은데 불공하면 어디가 다를고' 등의 표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으며, '사람 사람마다 이 말삼 드러사라', '한마암애 두 뜻 업시 속이지나 마옵사이다' 같은 표현을 통해 오륜을 지키며 바람직하게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는 세상의 부귀와 권세도 본래부터 소유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빌린 것임에 주목하면서 그릇된 소유 관념을 경계하고 소유욕에 얽매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가)와 (나)는 모두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와 권고의 의도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와 (나)에 '어와', '아' 등과 같은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가)와 (나)에 바람직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드러나 있지만 상반된 세계관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와 (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의 행동이나 생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시선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는 현실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자세를 권고하는 작품으로, 이상향에 대한 의식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역설적 표현을 통한 진술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43.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나)는 말을 빌려 탄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얻은 소유에 대한 개인적 깨달음을 임금, 신하, 부모와 자식, 부부, 주인과 비복 등과 관련한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로 일반화하여 소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경계하고 참되고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는 <제2수>부터 <제6수>까지 관념적 덕목(유교의 오륜)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켜야 할 도리를 제시한 것이지, 각각이 지닌 모순점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가)는 유교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지어진 작품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④ (나)에 욕망의 실현을 돕는 자연적 질서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에 자연물이 지닌 덕성을 부각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4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제4수>는 ‘반상을 들오되 눈썹에 마초이다(거안제미, 擧案齊眉)’를 통해 남편을 섬기는 아내의 도리를 노래하고 있으므로,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당화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4수>는 화자가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지,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제3수>는 여왕벌이나 여왕개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벌과 일개미의 생태로부터 주인(임금)에 대한 종(신하)의 도리라는 윤리적 실천의 주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유추하고 있다. ③ <제5수>의 초장에서 아우가 ‘형님 자신 젓을 내 조처 먹나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젓’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시어로 볼 수 있다. <제5수>에서 형님과 아우는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④ <제5수>의 ‘개돼지’는 오류를 지키며 실천하는 바람직한 사람과 대비되는 존재를 비유한 표현이다. ⑤ <제6수>의 초장에서 ‘늙은이’는 부모에, 어른은 ‘형’에 빚대어져 쓰이고 있다. 그리고 종장에서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마로리이다’라며 장유유서(長幼有序)의 도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즉 비유적 표현을 통해 사회 윤리가 가정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5.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나)에 인용된 맹자의 말은 그릇된 소유 관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글쓴이는 맹자의 말을 통해 오래도록 빌리고서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리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글에서 ‘나’는 ‘노둔하고 야윈 말’을 빌린 경우 전전긍긍하게 된다고 여기고 있으나, ‘노둔하고 야윈 말’로 인해 위험에 처한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 위험은 준마를 빌려 질주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② 2문단의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를 통해 준마를 소유할 때 의기양양한 감정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③ 글쓴이는 세상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대부분 빌린 것을 소유했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것이 미혹된 일이라 보고 있다. ④ 이 글에서 ‘독부’는 빌린 권력을 돌려준(빼앗긴) 후의 임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